

■ 영상택배 시즌2 - 이상설 선생 생가 탐방



보재 **이상설**
(1870 ~ 1917)

- 1870. 충청북도 진천 출생
- 1888. 신흥사에서 신학문 학습
- 1894. 과거시험 병과 합격
- 1896. 성균관 교수 겸 관장 임명
- 1905. 을사늑약 후 사직 상소 제출
자결 시도
- 1906. 블라디보스토크 망명
- 1907. 헤이그 특사 파견
- 1909. 국민회 결성
- 1914.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
- 1915. 신한혁명당 조직
- 1917. 사망
- 1962.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이번 호 뉴스레터와 함께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치고 이역만리 연해주에서 숨을 놓은 보재 이상설 선생의 생가 소개 영상입니다. 1870년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 1917년 숨을 놓은 이상설 선생을 만나보시며 주변의 독립운동 사적지도 되새겨보는 시간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증오가 낳은 광기의 깃발(1946년 11월 30일)

서양 종교가 들어온 이래 평안도는 한반도에서 기독교 교세가 가장 강한 곳이었다. 그 중 평안남도는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전통이 깊었다. 그런데 이 평양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고 "성직자 1명은 1개 사단병력의 군인과 맞먹는다."는 레닌의 주장을 신봉하는 소련군이 진주했고 그들과 함께 김일성은 입맛에 맞는 정부 조직을 갖춰 나간다.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된서리를 맞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천주교와 개신교를 불문하고 기독교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북한 청년들,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 청년들은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38선을 넘어 왔다. 가진 것이라고는 두 주먹과 공산당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밖에 없는 이 청년들을 조직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평안도 출신들 뿐 아니라 황해도, 함경도 등 이북에서 살다가 넘어온 사람들도 몰렸다. 이들이 1946년 11월 30일 '서북청년회'의 깃발을 들어올린다.

서북청년단의 공식 명칭은 서북 청년회였다.

그들이 하는 일은 사실 경찰이나 군대가 하기 힘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을 도맡으면서 동시에 그 적개심을 빨갱이에게 털어놓는 일이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주도에 보내진다. 서북청년단과 제주도의 악연은 1947년 4월 부임한 유해진 도지사가 서북청년단 출신 7명의 경호원을 데리고 오면서 시작됐다.

이후 11월 서북청년단제주도단부가 결성됐고, 4·3 이전까지 제주에 파견된 서북청년단원은 제주읍 300명, 각면 40~50명 등 총 760명에 달했다. 1948년 11~12월 사이에는 서북청년단원 1000여명이 경찰이나 경비대 옷을 입고 추가로 투입돼 무장대 진압에 나섰다.

특히 여순항쟁이 일어난 후 1948년 11월 제주경찰에 배속된 서북청년단원 200여명은 이른바 '200명 부대'로 불리며 제주도에서 각종 만행의 선두에 섰다. 이들은 처음에는 '경찰보조원' 신분으로 월급·보급품 등을 전혀 받지 않은 채 관공서를 등치거나 민간인들로부터 식량·의류 등을 강탈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1948년 11월 9일엔 제주도청 총무국장인 김두현씨가 "배급품을 달라"는 서북청년단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끌려가 폭행당해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국가 공무원에게 이런 만행을 저질렀으니 민간인들에 대한 행패는 하늘을 꿰뚫을 지경이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잡아 들여 고문과 구타를 일삼았다. 잡혀간 이들을 풀어주겠다며 가족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 금품을 목적으로 억울한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 고문·구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들은 빨갱이에 대한 적개심을 사탄에 대한 그것과 동일시했다. 사람의 가슴에 죽창을 박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사람을 태우면서 찬송가를 불렀다. 워낙 사람들을 많이 죽이다보니 쓸려 들어온 우익 인사도 용서 없이 죽였던 것이다.

4.3항쟁을 다룬 영화 <지슬>에서 "우리 오마니도 빨갱이 손에 갔소." 하면서 할머니를 불태워 죽이는 모습의 평안도 사투리 군인은 바로 그들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들은 가장 비기독교적으로 사람을 학살했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십계명을 어겼다.

대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닌 증오이고, 믿음에 의거한 행동이 아닌 배신이다. 서북청년단은 자신들이 박해받고 배신당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증오를 합리화했고 이를 반공과 결부시켜 나아갈 명분으로 삼았고 그 나아가는 길에 널린 모든 방해물들을 폭력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애국으로, 신앙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증오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전쟁으로 만개된 증오란 열매의 씨앗 가운데에는 그들이 뿌린 것도 많았다. 서북청년단이 1946년 11월 30일 광기의 깃발을 올렸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사모곡이 들려오는 <무척산 모은암> 세 번째 이야기 “수로왕비릉과 파사석탑”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수로왕비릉 | 김해 허씨의 영원한 어머니 허왕옥을 모신 능이다.

수로왕비는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許氏의 시조모始祖母로 허황후許皇后라고 한다.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호號는 보주태후普州太后다. 아유타국阿逾他國혹은 남천축국南天竺國의 왕녀라고도 한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사천성四川省의 안악현安岳縣에 해당하는 보주普州 출신의 중국계설, 일본 열도에서 돌아온 가락국 왕녀설, 낙랑에서 온 상인설 등을 따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삼국유사』에 따르면, 서기 48년에 해당하는 수로왕 재위 7년 7월에 왕후가 아유타국에서 바다를 건너왔다. 왕은 유천간留天干에게 명하여 망산도望山島에 올라가 망을 보도록 명하였다. 마침 비단 돛을 단 범선帆船 하나가 붉은 깃발을 꽂고 서남방으로부터 북쪽을 향하여 달려오거늘, 왕은 궁성의 서쪽에 임시 처소를 베풀고 왕후를 기다렸다.

허황옥은 돛을 내리고 육지에 올랐다. 20여 명의 무리들이 갖은 보화와 진귀한 물품을 받들고 그 뒤를 따랐다. 허황옥은 높은 언덕에 올라가 쉬면서, 입었던 비단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폐백으로 드렸다. 얼마 후 왕의 처소에 다다른 허황옥은 이튿날 목은 다음, 왕과 함께 수레를 타고 궁전으로 돌아와 왕후가 되었다.

이때 허황옥은 수로왕을 처음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또한 『삼국유사』의 기록이다.

저는 본래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씨요, 이름은 황옥입니다. 나이는 16세입니다. 금년 5월에 본국에 있을 적에 부왕께서 황후와 더불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밤 꿈에 함께 상제를 뵈오니 상제의 말씀이 ‘가락국의 왕수로는 하늘이 내려보내 왕위에 오르게 하였고다. 이 사람이야말로 신성한 사람이다. 그런데 새로 나라를 다스리느라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는 공주를 보내 짝을 삼게 하라.’ 하시고는 말씀을 마치자마자 하늘로 올라가셨단다. 잠을 깬 후에도 상제의 말씀이 여전히 귀에 쟁쟁하니, 너는 곧 이 자리에서 부모와 작별하여 그곳으로 가도록 하라!”

그래서 저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불로장생약인 찐 대추를 구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천도복숭아를 얻었습니다. 이제야 이 여인은 외람되이 임금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로왕의 대답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못 신성하여 공주가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이라. 그리하여 왕비를 맞으라는 신하들의 청도 듣지 않았더니 지금 현숙한 그대가 스스로 왔구려. 이 사람에게 무척 다행스런 일이고.

허황옥이 가져온 ‘찐 대추’와 ‘선도복숭아’ 탓일까? 수로왕과 왕비는 열 명의 아들을 낳고 오래오래 살았다. 수로왕은 199년에 세상을 등졌으니 재위 기간만 해도 무려 158년이나 된다. 왕비는 189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어언 156년이나 살다가 간 셈이다.

수로왕비릉은 분산盆山에서 '구지봉'으로 내려오는 구릉 한쪽에 터를 잡은 원형 봉분이다. 지름이 16~18m이며 높이는 5m에 이른다. 수릉보다 다소 작은 규모지만 능 주위로 네모나게 곡장曲墻을 둘렀다. 앞쪽에 낮은 단의 축대가 있고 경내에 내삼문·승보재·외삼문·홍살문 등이 펼쳐졌다.

능 앞에는 전설의 파사석탑이 우뚝하다. 왕비는 본래 가락국으로 오는 첫 번째 항해에서 풍랑을 만나 실패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되돌아가 부왕에게 고하니, 부왕은 파사석탑을 신고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일렀다. 그래서 왕비는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탑을 신고 마침내 남해 바닷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탑은 바람을 잠재우는 탑이라는 의미에서 '진풍탑 鎮風塔'으로도 불렸다.



파사석탑 | 과연 이 탑은 인도에서 건너왔을까?

안내문을 보면 파사석으로 만든 이 탑은 5층이다. 네 면의 조각이 기묘하며 돌에 열은 줄 무늬가 있는데다가 질이 좋다고 쓰였다. 오늘날에는 조각도 대부분 지워지고 거친 돌덩이 몇 개만 쌓아 놓은 형태다. 볼품이 없다. 일설에는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이 파사석 조각을 지니고 고기잡이를 나가면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어 이 탑을 깨 가지고 다녔기에 지금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한다.

파사석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돌로 인도에는 흔하다고 한다. 『신농본초神農本草』의 기록에 의하면, 닭의 부리에서 채취한 피를 파사석 위에 떨어뜨려 보면 피가 전연 굳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어느 향토 사학자가 이 탑에 직접 시험해 본 결과 닭 피가 굳지 않았다고 한다.

파사석은 이 석탑 외에도 김해 지방에 몇 군데 실재한다. 먼저 모은암母恩庵의 관음전 앞쪽에 모셔진 두 개의 작은 돌이 파사석이라고한다. 해은암에는 어루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해석海石이 전해온다. 부은암의 천불보전 뒤에 놓인 맷돌 모양의 돌은 지금도 인도의 신전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요니'와 흡사하다. 지름이 78cm로 결코 작지 않은 크기다. 이 돌들 역시 허황옥과 함께 인도에서 건너왔다고 한다.

수로왕비릉의 파사석탑은 본래 김해시 동상동에 있던 호계사虎溪寺에 세워졌는데, 폐사 이후 조선 말기 김해 부사를 지낸 정현석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현재 경상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파사석탑의 미스터리는 지금 당장 명쾌하게 밝힐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를 통한 불교의 대륙전래설보다 300년 이상이나 훨씬 빠른 시기에 불교가 가야를 통해 해상으로 전래되었다는 주장을 밝혀 줄 중요한 단서다. 그래서 파사석탑은 세인들의 이목을 강렬하게 이끈다.

아득한 고향 꿈을 꾸고 있는가? 파사석탑은 여전히 말이 없다.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비각에 갇혀 자신의 그림자마저 온전하게 드리우지 못하고 있다.

다음 회는 <무척산 모은암> 네 번째 이야기 “전설의 구지봉”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